

중견작가들이 보내는 깊고 묵직한 메시지

분단과 이념의 역사 다룬 작품집 출간 활발

90년대 문학판엔 젊은 작가들만 있는가. 문예지, 각종 매체의 문학면에서 광고문구에 이르기까지 '젊은 작가'라는 말은 요즘 가장 일반적인 수식어로 쓰이고 있다. 반면에 7,80년대 첨예한 이념대립의 문학판에서 입지를 굳히며 한국문단을 이끌어왔던 40대 중반 이후의 중견작가들은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견작가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이 문단 안팎에 자성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감각적이고 가벼운 것들 일색인 빈곤한 문학판에 이들이 던지는 깊고 묵직한 메시지는 문학이 어떻게 위기와 죽음을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한 응답을 응변해주고 있다.

역사와 민족의 아픔 그려

최근 출간된 중견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특히 90년대 문학이 이제 지나가버린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있는 '분단과 이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다.

송기숙(61)씨의 장편 《은내골 기행》(창작과비평사)은 '은내골'이라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한 젊은이의 눈에 비친 해방과 분단, 유신정권의 폭압정치를 인간의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전직 신문기자였던 주인공은 우연히 은내골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의 내막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친일파에서 극우분자로 이어지는 어두운 연결고리를 밝혀낸다. 94년 대하소설 《녹두장군》(전 12권)을 완간하고 한동안 작품발표를 쉬고 있었던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민중의 삶과 사회현실이라는 역사의 보편적인 진실을 추구한다.

중량감 있는 대하역사소설을 주로 발표해 온 김주영(57)씨가 최근 펴낸 대하소설 《야정(野丁)》(전5권, 문학과지성사)은 구한말 만주 땅으로 들어가 풍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민들의 고단한 삶을 다룬다.

조선에서 세도가의 종으로 핍박을 받으며 살다 만주 땅으로 옮겨간 주인공 최성룡의 잡초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충일한 인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작가 특유의 토속어 구사능력으로 그려낸 우리 민족의 고단한 삶은 단순한 사실

최근들어 중견작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하다. 송기숙·김주영·박영한·홍성원 등의 작가들은 90년대 문학이 잊고 있던 '분단과 이념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감각적이고 가벼운 작품들 속에서 이들이 던지는 깊고 묵직한 메시지는 문학의 위기에 또다른 울림을 전해준다.

성을 뛰어넘어 장중한 서사시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중견작가 박영한(49)씨의 《장강》(전 2권, 창공사)은 일제와 한국동란기를 관통하며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수기를 바탕으로 씌어진 소설이다.

이북출신인 주인공은 일본 유학중 항일운동 단체를 결성,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조국에 돌아와 다시 반동으로 몰려 시베리아에 유형된다. 이후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그는 6.25가 터지자 인민군에 대항하는 유격대로 활동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 결국 남한에서의 삶에도 적응을 못한 채 쓸쓸한 말년을 보낸다. 이 작품은 역사의 격랑에 좌초된 개인의 실존적 아픔을 그려낸다.

이러한 근현대사의 문제의식은 홍성원(59)씨의 장편 《그러나》(문학과지성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제 강점기라는 불행한 시대를 살다간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는 이 소설은 독립투사와 친일파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사람의 감추어진 실체를 밝혀낸다. 그로 인해 항일과 친일의 이분법적 평가가 꺾박의 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의 삶을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낸다. 선악과 정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무겁고 혼돈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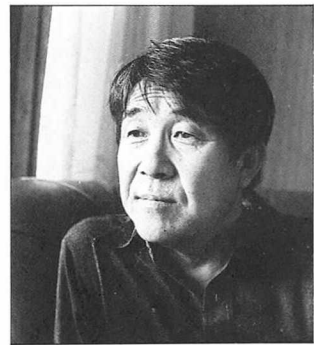
얼마전 출간된 이호철(64)씨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프리미엄 북스)은 열아홉 어린 나이에 인민군으로 징병되어 전쟁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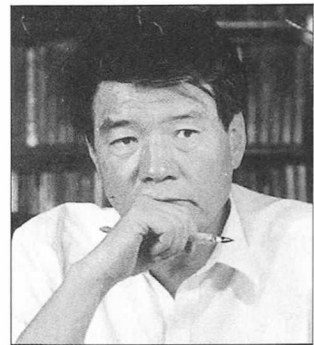
오정희씨.



윤정모씨.



이호철씨.



김주영씨.



송기숙씨.

쪽 군대의 포로로 잡힌 작가 자신의 체험을 다룬 연작소설집이다. 다섯편의 중단편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전쟁을 현장에서 겪은 저자가 오늘의 시각으로 전쟁체험세대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상잔의 이념전쟁이었던 6.25의 내부에 숨겨진 인간성에 주목, 인물들의 성격대비를 통해 참다운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윤정모(50)씨의 《나비의 꿈》(한길사)은 95년 독일에서 타계한 음악가 윤이상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67년 이른바 동백림 사건 때 간첩으로 지목되어 조국으로부터 엄청난 고문과 명예훼손을 당한 그의 실체를 복원하고 있다. 이 책은 분단의 한을 뛰어넘어 민족과 인류에 대한 편견 없는 애착과 신뢰로 이루어낸 그의 예술세계를 객관적인 자세로 서술하고 있다.

완벽한 구성력으로 큰 울림

이밖에도 올해 문학과지성사에서 장편 《아우라지로 가는 길》을 발표한 김원일(54)씨, 중편단행본 《새》를 발표한 오정희씨 등도 중견 작가 특유의 완벽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다.

《아우라지로 가는 길》은 정신박약이 동반된 자폐증의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세상 속

을 흘러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는 과정을 통해 '선'이나 '자연'과 동일시되는 고향 아우라지를 꿈꾸는 원초적인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12살 소녀의 눈을 통해 어렵고 추한 현실에 불안을 느끼며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꿈꾸는 현대인의 실존을 그려내고 있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작품세계는 타장르와의 소통이나 감각적인 이미지보다는 문자로 구성된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미학을 주조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문학과 구별된다. 문학의 해를 맞아 발표된 중견들의 작품세계는 그 문학적 면모로 보나 주제의 깊이로 보나 우리에게 의미있는 울림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

— 허연 기자